

중앙절제술 후 발생한 하악 결손의 재건 : 결손 부위에 따른 비골 유리 피판의 다양한 임상 적용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설철환 · 유대현 · 탁관철

연구배경 : 하악골의 중앙뿐 아니라 구강내 암 절제 후 많은 경우 하악 결손이 동반되게 된다. 이의 재건은 alloplastic material을 이용 간단하게 시도 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대부분 이물 반응으로 인한 염증 혹은 이물질의 피부 노출이 문제가 되어 자가조직을 이용한 재건이 일차적으로 선택되고 있다. 자가조직을 이용한 방법에도 두개골, 늑골, 장골등의 이식이나 장골(DCIA), 비골, 견갑골, 요골 유리 피판술등의 혈행화된 골이식이 있으나 이중 비골 유리피판은 활용성에서 가장 뛰어나 최근 들어 임상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절제술 후 발생한 하악 결손의 재건에 있어 결손 부위에 따른 비골 유리 피판의 다양한 형태의 임상 적용과 이를 장기 추적한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결손에 따른 재건방법에 대하여 논해 보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중앙절제술 후 발생한 하악 결손의 재건을 위하여 비골 유리 피판을 이용한 환자 중 추적조사가 가능했던 12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환자들을 원발암 부위, 결손 부위 및 크기, 적용된 비골 피판의 형태 등으로 분류하여 이에 따른 미용적 및 기능적 측면을 장기 추적 결과를 연관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 하악골 골결손 뿐만 아니라 피부 및 연부조직 결손 또는 구강 저나 구강점막 결손을 동반한 경우 피부판을 포함하는 복합조직 이식을 시행 하였으며 피판 궤사나 누

공동의 합병증은 관찰 할 수 없었다.

하악체만의 결손 시에는 비골 피판을 한 겹 또는 두 겹(double barrel)으로 시행하였으며 두 겹으로 시행한 경우 치아 implant 적용이 용이하였으며 보다 나은 물리적 강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한 겹으로 재건한 경우에는 장기 추적 시 동측 협부가 함몰되어 이차적인 지방이식이 필요하였으나 두 겹인 경우 미용적으로도 좋은 결과가 유지 되었다. 하악 결합부가 포함된 경우는 closing wedge osteotomy를 이용해 본래 하악 하연의 곡선형태 대로 재건이 가능하였으며 미용적으로 매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악체와 더불어 하악 과골까지 결손된 경우 비골 유리 피판에 늑연골을 부착하여 골두를 재건하였다. 장기 추적 시 하악의 개구가 정상적이었고 골두 흡수로 인한 하악의 비대칭성은 관찰 할 수 없었다.

결 론 : 비골유리피판은 중앙절제 후 발생한 하악 결손에 있어 결손의 부위와 형태에 따라 다양한 변형이 가능한 유용한 재건방법으로 체부의 경우 double barrel의 형태로 그리고 과두골 결손시 늑연골을 이용한 골두 재건을 병행함으로써 좋은 미용적, 기능적 결과를 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